日本語學硏究 第28輯 (2010. 9. 20. pp.286~300)

일제강점기 일본어학습자에 있어서 문말형식의 보존*

-동사문 정중체를 중심으로 -

황영희**

< 요 지 >

본고는 한국노년층이 근대적인 식민지하의 일본어 학습환경 아래에서 일본어를 습득한 후 60여년이상 보존하고 있는 일본어(=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을 언어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그 보존 양상과 관련한 언어적 요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동사술어문)을 보면 특히, 학습습득적 요소가 강하고 일본어접촉도가 낮은 층에서 고정적인 규범형과 불안정한 비규범형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일본어학습자의 중간언어 습득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단순화, 합리화(분석화)의 책략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형용사문 및 명사문에서 デス形이 マス形보다 우위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도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잠복기일본어에 있어서 비규범형 문말형식의 사용이 한국어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 교실학습적 요소가 강한 여성화자가 규범형을 우위적으로 사용하며 일본어접촉도가 낮을수록 고정적이고 관용적인 규범형을 사용한다는 언어외적 요인과의 상관성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외적 요인과 더불어 일본어접촉도가 높은 화자들에게는 문장 내에서의 담화기능에 따른 사용구분 등과 같은 언어내적인 요소도 (비)규범형 사용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잠복기일본어의 동사문말형식은 일정한 일본어능력을 습득한 화자에게 다양한 변이형로 나타나는 가운데 현재의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습득과정에 관한 선행연구와 본고의 화자의 속성에 따른 (비)규범형의 출현 양상에서 볼 때 「マセン・マセンデシタ(규범형)」 보다 「ナイデス・ナカッタデス(비규범형)」 이 장기간 보존되는 보존(또는 회귀)의 프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다.

논문분야 : 사회언어학
키 워 드 : (동사)문말형식, (비)규범형, 단순화, 합리화(분석화), 제2언어보존

1. 서론

지금까지 일본어 습득과정에 있는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문말형식의 중간적 형태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金沢2008). 그러나, 한국인일본어학습자가 일제강점기 교육환경에서 습득한 이래 60여년간 잠복상태에 있는 일본어(이하, 잠복기일본어라 한다)와 같이 일본어습득 중단 이후의 일본어 문말형식(동사술어문, 명사술어문, 형용사술어문)의 보존 실태에 대해서는 木口(2009)、真田(2009)를 제외하면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A00622).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사회언어학적 방법에 입각한 제2언어습득분야

이에 본고는 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의 보존 실태를 파악하고 그 보존과 관련한 언어내적요인 및 언어외적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형성기에 입력된 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은 활용면에서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표준적인 일본어 사용에서 볼 때 불안정한 모습도 나타나는데 과연 그것이 일본어 문말형식의 습득단계(マス形>デス形、マセン形>ナイデス形)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 의문점을 가지고 고찰해 가고자 한다.

또한, 잠복기일본어에는 당시의 일본어교사와 일본인 친구 등과의 접촉과정에서 입력(input)된 일본어의 방언형도 관찰되는데 긴 잠복기간을 통해 단순화되고 분석화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중간방언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나는 잠복기일본어의 (그 방언적 성격을 포함해) 언어적 성격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필자의 다른 문법카테고리에 대한 고찰(黃2008)을 통해 볼 때 본고에서는 “제2언어로서의 일본어”로 자리매김하고 “학습자의 중간언어”라는 관점에서 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 선행연구

먼저 제1언어로서 일본어의 문말형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田野村(1994)는 정중체의 술어부정형(「ません」「ないです」)의 사용빈도와 문체와의 상관성, 후속하는 종조사의 유무와 관련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전접하는 동사의 종류와 변이형의 출현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野田(2004)는 「ません」「ないです」에 대해 구어체자료와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앙케이트조사를 통해 후자인 「ないです」가 구어체에서의 사용비율, 청년층에서의 사용비율, 가능동사에서의 사용비율이 높고 종조사와의 공기도 강한 사실을 들면서 문체 및 동사종류와도 상관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문맥과 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ません」→「ないです」의 방향으로 사용빈도의 변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말해지고 있다(金沢2008).

한편, 제2언어로서의 학습자일본어라는 측면에서 野田외(2001)는 일반적으로 문말형식에 있어서 중간언어 화자는 동사과거형의 정중체를 만들 때 <표1>의 표준적인 A계열(정중-과거)보다는 비표준적인 B계열(과거-정중)로 발언하는 합리화(분석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비과거	
		A계열	B계열	A계열	B계열
동사	긍정	書きました	＊書いたです	書きます	＊書くです
	부정	書きませんでした	書かなかったです	書きません	書かないです
イ형	긍정	＊暑いでした	暑かったです	暑いです	
	부정	暑くありませんでした	暑くなかったです	暑くありません	暑くないです
명사	긍정	雨でした	雨だったです	雨です	
	부정	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雨ではなかったです	雨ではありません	雨ではないです
ナ형	긍정	静かでした	静かだったです	静かです	
	부정	静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静かではなかったです	静かではありません	静かではないです

<표1> 일본어 문말형식의 2계열 (정중체)

＊표에서 ＊은 비표준형, 동사는 동사술어문, イ형은 イ형용사술어문, 명사는 명사술어문, ナ형은 ナ형용사술어문을 가리. 키며 필자가 野田외(2001)에 비과거의 문말형식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시켜 수정인용한 것임.

그리고, 정답률이 습득순서를 반영한다는 이론에 입각해 「正用순서(accuracy order)」라는 방법에 따라 森山(2000)는 언어습득 초기단계의 한국인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사습득은 「る形」이 「ます形」에 선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아가 森山(1998)에서는 한국인일본어학습자는 습득 초기단계에 「マス、マセン、マシタ、マセンデシタ」등의 マス形을 동사문 전체에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학습단계가 진전되면서 서서히 아스펙트와 정중체 등 다양한 표현의 도입이 활용어미에도 반영되어 「マス形에서 テ形으로의 분화(マス→テイル、マシタ→タ 등)」와 「マス形에서 ナイ形으로의 분화(マセン→ナイ 등)」가 일어난다고 한다. 여기에서 학습자의 「タデス形、ナイデス形」과 같은 (비규범적인) 문말형식의 사용은 학습자의 일본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습득단계의 일본어학습자가 사용하는 문말형식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보이지만, 습득단계 이후의 일본어학습자의 문말형식의 動態에 대해서는 잠복기일본어의 경우 언어마멸단계에서 쇠퇴적 경향 뿐만 아니라 입력(input) 과정에 없었던 형식(「タデス, ナイデス, V+デス」)와 같은 비표준적인 형태가 생산적 경향으로 나타남을 지적한 木口(2004)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주로 언어형식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제2언어보존기의 문말형식과 화자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화자의 속성을 제한한 조사가 필요하며 전접하는 동사의 종류, 종조사와의 공기관계, 문장내에서 동사술어의 기능에 따른 사용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언어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특히 화자의 속성과 문말형식 사용과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조사개요

3.1 조사데이터

본고의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2006년 8월에 서울과 대구를 필드로 일제강점기에 서로 다른 일본어 습득환경에서 일본어를 습득한 한국노년층 남녀 8명와 중년층의 일본어모어화자(40대의 여성2명, 30대의 남성1명)와의 담화를 녹음한 후 문자화한 데이터이다. 당시의 학습사정과 언어습득과 관련한 제반 상황, 현재의 언어의식, 언어능력, 생활사정 등에 관한 질문을 일본어로 인터뷰한 것이다(1인당 평균44분의 담화, 구체적인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黃(2008)을 참조).

3.2 인포먼트

아래의 <표2>에 각 화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였다. <표2>에서 화자명의 숫자는 현재의 일본어 능력순서를 나타내고 알파벳은 당시의 습득환경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문말형식 사용빈도의 차이를 화자의 속성이라는 시점에서 그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초등교육 졸업까지 일본어를 습득한 P그룹, 초등교육 졸업까지 일본어를 습득한 후 직장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한 W그룹, 중등교육 졸업까지

일본어를 습득한 M그룹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표2> 화자 정보

화자	생년	성별	출신지	일본어학습력	직업력
1M	1920	여	충청도	보통학교(6)・가정여학교(3)	-
2M	1928	여	충청도	심상소학교(6)・고등여학교(4)	-
4M	1927	남	전라도	보통학교(6)・중학교(5)	-
3W	1926	남	경상도	보통학교(6)	전력회사(2)
6W	1928	여	충청도	국민학교(6)・소학교고등과(2)	버스회사(3)
5P	1926	여	경상도	국민학교(6)	-
7P	1927	여	경상도	국민학교(6)	-
8P	1930	여	평안도	국민학교(6)	-

＊화자의 일본어능력에 대해서는 실제 담화데이터를 (담화조사의 대화상대와 다른) 일본어모어화자 2명이 듣고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 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이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는 화자의 일본어 접촉도와 다른 언어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자가 최종판단하였다. 표에서 ( )안의 숫자는 해당 연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거론하는 한국노년층화자는 1945년 광복 이전에 일본어 읽기쓰기에 대한 기초학습능력(literacy)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결정적인 언어량(critical mass)도 획득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광복 후 60여년간 일본어와의 접촉이 미비했고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기본조건이 동일하면서도 일본어 습득 당시의 사회적 속성(학습력과 직업력)과 현재의 일본어 보존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 조사대상 설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3.3 분석항목

이하에서는 초면의 중년층 일본어모어화자와의 포멀한 장면에서의 대화에 사용된 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화자별로 상세하게 살펴 보도록 한다. 그 가운데 특히 담화 내의 발화량과 변이형이 많은 동사문 정중체(긍정・부정, 과거・비과거)의 사용에 주목해 그 특징을 고찰하도록 한다(표1과 표4의 B계열).

이 때 비규범형으로 분류한 ン(ノ)デス形에는 일반적으로 デス形과 다른 특수용법이 있어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주로 언어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의미・기능적 차이에 대해서는 (문맥상 화자의 발화의도를 고려한 판단에 어려운 점이 있어) 4절에서 문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들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확인요구 등을 나타내는 문말의 デショ(↑)는 67예가 보였으나 접속 면에 큰 차이가 없어 별도로 취급하지 않았다. 실제 담화에서 종속절에 정중체가 81예 출현하고 있으나 주절의 문말형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동일문장을 단순 반복하여 발화한 경우는 한번만 카운트하였으며 인터뷰어의 발화를 그대로 반복한 경우와 인용문에 포함된 문말형식의 경우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4. 문말형식의 사용실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복기일본어의 정중체와 보통체의 사용빈도를 통해 문장스타일의 전체적인 윤곽과 특징을 살펴보자. <표3>은 화자별 (동사문 이외 명사문・형용사문도 포함한) 문말형식 전체의 사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3> 문말형식 전체의 사용비율

	1M	2M	3W	4M	5P	6W	7P	8P	計
문말형식 전체	282	156	208	172	212	159	226	211	1626
보통체(A)	190	48	119	41	96	44	35	30	603
정중체(B)	92	108	89	131	116	115	191	181	1023
정중체 사용비율(C)	32.6	69.2	42.8	76.2	54.7	72.3	84.5	85.8	62.9

* C = B / A+B

<표3>에서 화자1M, 화자3W, 화자5P의 정중체 사용비율은 전체화자의 평균 62.9%를 밑돌고 있으며 오히려 보통체의 사용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동세대의 일본어모어화자의 유사한 형태의 대화에 나타난 정중체의 사용비율보다 높은 편이다[1].

보통체의 사용비율이 높은 화자(1M, 3W, 5P)를 그 사회적 속성 면에서 살펴보면 정중체의 사용비율과 현재의 일본어능력이나 성별, 일제강점기의 습득환경이라는 언어외적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표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비교적 일본어능력이 낮고 당시 초등교육만 받은 여성화자들의 정중체 사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1. 동사문 정중체

이하에서는 상기의 화자별 정중체 사용비율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의 중심내용인 동사문 정중체의 사용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4>는 화자별 동사문 정중체의 사용을 극성(표의 세로축)과 시제 및 계열별(표의 가로축)로 정리한 것이며, 이해를 편의를 위해 크게 긍정형과 부정형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 <그래프1>과 <그래프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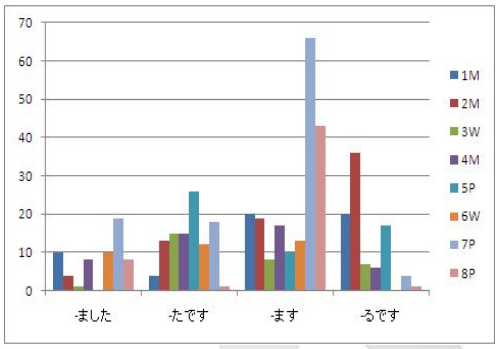
<표4> 동사문 정중체의 사용실태

		과거		비과거		계
		A계열 (~ました)	B계열 (~たです)	A계열 (~ます)	B계열 (~るです)	
긍정	1M	10	4(2)	20	20(6)	54
	2M	4	13(11)	19	36(22)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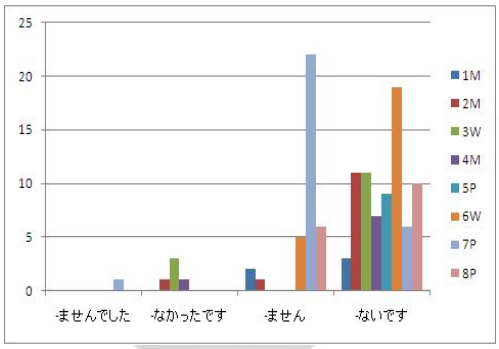
1) 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사카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사회 언어학 연구실의 SS코퍼스(Ver1.0)에 수록된) 오사카방언화자의 담화자료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이다. SS코퍼스(Ver1.0)는 일본 각지의 일본어방언화자와 중급수준의 일본어중간언어화자를 대상으로 스타일 전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어모어화자와의 대화를 수집한 자료이다.

	3W	1	15(15)	8	7(6)	31
	4M	8	15	17	6(5)	46
	5P	0	26(12)	10	17(10)	53
	6W	10	12	13	0	35
	7P	19	18	66	4(1)	107
	8P	8	1(1)	43	1	53
계		60	104(41)	196	91(50)	451
		과거		비과거		계
		A계열 (～ませんでした)	B계열 (～なかったです)	A계열 (～ません)	B계열 (～ないです)	
부정	1M	0	0	2	3	5
	2M	0	1(1)	1	11(8)	13
	3W	0	3(3)	0	11(3)	14
	4M	0	1	0	7(1)	8
	5P	0	0	0	9	9
	6W	0	0	5	19	24
	7P	1	0	22	6	29
	8P	0	0	6	10(5)	16
계		1	5(4)	36	76(17)	118

＊「～たです、～なかったです、～るです、～ないです」에 각각 ン이 삽입된 형태를 ( )에 표시.



<그래프1 : 동사문-긍정>



<그래프2 : 동사문-부정>

<표4>와 <그래프1><그래프2>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a) 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은 비과거의 긍정형(マス形)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비규범형(B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형식면에서만 보면 木口(2009)가 지적하는 대로 습득단계에서 입력(input)된 순서의 일본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본어학습자의 습득과정에서도 보이는 보편적 책략인 デス形으로의 합리화(분석화)가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어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과서인 国立国語研究所編(1997)에는 비규범적인 형태의 사용이 1예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강제적 일본어 습득환경 아래에서 오로지 교과서에 의지한 교실학습에서 습득된 잠복기일본어는 교과서의 언어규범적 성격이 보존되고 있으나 규범형의 일본어가 그대로가 남아 있지는 않은 것이다.

(b) 그러나 모든 화자가 일률적으로 비규범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화자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화자2M, 3W, 4M, 5P, 6W의 경우에는 비규범형(B계열)의 사용, 화자1M, 7P, 8P의 경우는 규범형(A계열)의 사용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후자인 규범형 우선의 화자 가운데 화자7P, 8P에게는 화자1M에 비해 고정적이고 관용적인 문말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예1~3).

(1a) 1M : その鹿の子供はかわいいだろうと思って[はい]、あの鹿み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
(1b) 1M : 小さい時から、普通学校の時から[はい]、奈良に行ったら、鹿がかわいいだ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よ。
(2a) 7P : 妹さん、妹さん、三人しました。→(いました)
(2b) 7P : 一番と아해보고、普通、教育、普通にしましたでつ。→(しました)
(3a) 8P : 日本にね、[はい]、한、3年前、んー、旅行、え、あの、行って、大阪に行き、あ、東京に行きましたよ。→(行ったんですよ)
(3b) 8P : ええ、お友達が、あったらいいんですけどね、今はありませんですよ。→(ありません)
(3c) 8P : 예、もう、分かりませんよ。 [んー] ん、分かりません。

*→( )은 보다 적절한 표현. [ ]은 대화상대의 발화. 이하 같음.

가장 높은 일본어능력을 유지하고 있거나 일본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에 규범형이 사용되고 있으나 후자 쪽이 보다 고정적이고 관용적인 규범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규범형은 일본어접촉도 면에서 중간층에 다수 출현하고 있으며 규범형의 사용에는 고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일본어 사용능력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4.3절에서 詳述).

(c) 부정의 과거형은 그 사용수(6예)가 적어 결론을 내기 어려우나 비과거형의 사용(비규범형 76예>규범형 36예)을 고려하면 예(4)와 같은 화자7P의 규범형 사용이 부정표현에서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b)의 경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비규범형은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규범형의 사용은 화자6W(5예), 화자7P(22예), 화자8P(6예)에 편중되어 있다. 이들은 일본어접촉도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정의 과거형에서 고정적이고 관용적인 규범형의 사용은 일본어접촉도에 기인하는 일종의 화석화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7P : 忘れて、子供の時は頭に아마よく分かります。
NS : そしたら小学校を [ろくねん] 6年で卒業してから、中学校は。
7P : 行きませんでした。
NS : 行きませんでしたか。じゃ、卒業した後で、すぐ日本と朝鮮が、

(d) 아래의 <표4-1>은 <표4>를 세 가지의 그룹(화자의 속성에 따른 M, W, P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1인당 사용비율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4-1> 그룹별 동사문 정중체의 사용비율

		과거		비과거		계
		A	B	A	B	
긍정	M	7.3	10.7	18.7	20.7	57.3
	W	5.5	13.5	10.5	3.5	33
	P	9	15	39.7	7.3	71
부정	M	0	0.7	1	7	8.7
	W	0	1.5	2.5	15	19
	P	0.3	0	9.3	8.3	18

<표4-1>의 그룹별 동사문 정중체의 사용분포는 문장 내의 기능에 따른 문말형식의 사용능력과 화자의 일본어 접촉정도의 차이(즉, P그룹으로 갈수록 규범형의 사용이 증가)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긍정의 비규범형(B계열 : ~タデス)의 사용이 모든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는 점(M평균 : 10.7예, W평균 : 13.5예, P평균 : 15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5) 1M: その時代は日本語、そうね。今の人たちは、ま、小学校の3、4年になって、それから、あの、解放されたでしょう(↓)。
(6) 2M : (당시 교사가 2M을)ニッポン人らしいといって、とてもかわいがっておったんですよ。
(7) 3W : だから、ソ連軍が[ええ]、その、38以北[ええ]、占領して[え]、このアメリカ軍は38南を、武装解除したんですよ。

과거-긍정의 비규범형(~タデス)의 正誤판정은 문맥, 발화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화자4M 이하의 화자들의 특징은 화자3W까지와 비교해 문맥상 설명과 요구, 확인, 강한 어조를 나타내기 위한 「~ンデス」의 구문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B계열을 사용하고 있어 불안정한 일본어 문말형식의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자4W와 화자5P는 초면의 일본어모어화자에 대한 질문으로 부적절한 ンデス구문을 사용하고 있다(예8,9).

(8) 4W : {休止}、그래 뭐、結婚したですか。
NS : いいえ、まだです。{笑い}
(9) 5P : (NS에게) あ、○○歳。んー、旦那さんも一緒に来たんですか。

또한, 일본어접촉도가 낮아질수록 ン의 누락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10,11), 활용의 오류로 인한 예(12,13) 등이 많이 눈에 띈다.

(10) 5P : 子がね、 [ええ] 天国行ったですよ。その孫が、一人あったですよ。{涙声で}、
(11) 6W : 私は私が言って、学校通ったですよ。も、お父さんがこう言ったら、行かないです。막、それで、私が一人ぼちでね、私が通ったです。
(12) 7P : その先生に、だから、算盤있잖아、算盤、 [ええ] 、それをとてもよく、まなっだです。→(学んだです)

(13) 7P : 一番と아해보고、普通、教育、普通にしましたです。→(したんです)

하지만, 가장 일본어접촉도가 낮은 화자8P의 경우 비규범적인 형태로 예(14)만 보일 뿐 나머지는 규범형을 사용하고 있다. 金沢(2008)은 앞에서 든 예(3b) 및 아래의 예(14)와 같이 문 내부의 정중체(~ンデスケド)의 출현을 음성만으로는 일본어모어화자와 거의 구별이 어려운 超級단계의 학습자와 그 아래의 上級학습자를 구분짓는 경계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자8P의 접촉중단 이전의 일본어능력을 짐작하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NS : あ、東京に行きました？
8P : 예예、東京にい、い、い、行って、んー、りょこえ、りょけ、댕기는데、
NS : どうでしたか。
8P : あー、ま、あ、昔、뭐、昔하고、아주、なんでですよ。日本語、分からないと、むー、言ったんですね、けれど、日本、日本に、日本に딱行きましたよ。

이상에서 잠복기일본어의 동사문말형식에는 비규범형(B계열)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현재의 일본어학습자의 습득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책략인 "デス形으로의 합리화"가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접촉도에 따라 비규범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일본어접촉도가 낮아질수록 문맥상 설명과 확인, 강한 어조를 표현하기 위한 「~ンデス」의 구문이 필요한 곳에 A계열의 고정적이고 관용적인 규범형을 사용하고 있어 불안정한 일본어 동사문말형식의 사용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2 イ형용사문, 명사문(ナ형용사문)과의 관련성

다음으로 イ형용사문, 명사문(ナ형용사문)에서의 문말형식 사용과 前述한 동사문에서의 문말형식 사용을 비교해 가면서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표5>는 정중체의 イ형용사문의 사용실태를 화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5> イ형용사문의 사용실태

		1M	2M	3W	4M	5P	6W	7P	8P	計
긍정	과거	1	2	0	0	5	0	0	2	10
	비과거	8	3	5	5	14	14	24	24	97
부정	과거	0	4	0	0	0	0	0	0	4
	비과거	1	4	2	8	10	6	5	1	37

<표5>의 イ형용사문에서 「暑くありません、暑くありませんでした」와 같은 マス形은 보이지 않고 「暑くないです、暑くなかったです」와 같은 デス形만 쓰여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イ형용사문에서도 학습자의 합리화(분석화)가 작용하여 デス形으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いいでした, 知らないでした」와 같이 일본어습득 초기단계의 일본어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는 이번 담화데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중체의 명사문(ナ형용사문)의 사용실태를 화자별로 정리한 <표6>의 명사문(ナ형용사문)<A계열 : Nではありません・N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Nでした, B계열 : Nではないです・Nではなかったです・Nだったです>에서도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규범적인 과거부정형(マス形)의 출현이 보이지 않고 비규범형(デス形)만이 사용되고 있다. 즉, 명사문과 ナ형용사문의 과거-긍정에서는 어느 쪽도 ダッタデスが 우위를 점하고 있다.

<표6> 명사문(ナ형용사문)의 사용실태

		1M	2M	3W	4M	5P	6W	7P	8P	計
긍정	과거	2	0	0	0	0	3	2	0	7
	비과거	19	10	31	62	25	29	23	83	282
부정	과거	0	0	0	0	0	0	0	0	0
	비과거	2	0	6	2	0	4	1	2	17

이상에서 형용사문과 명사문에서도 동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규범적인 デス形이 문말형식으로 多用되고 있는 (학습자의 합리화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연속적인 보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문말형식의 사용실태의 보존과 관련한 요인에 대해 언어 내적/외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4.3 문말형식 사용과 관련한 언어 내적/외적 요인

첫째, 한국어의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에서는 긴 부정문(부정형태소 後置)이 짧은 부정문(부정형태소 前置)보다 높은 정중도를 나타내게 된다. 일본어에서도 부정의 형태소가 後置하는 규범형의 정중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森山(2000)는 일본어학습 초기단계의 한국인학습자에게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러한 형태론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지만, 일정 레벨을 거친 잠복기일본어에서는 그러한 복잡한 문법구조를 처리하는 것을 회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담화자료에서도 (일상적인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국어 그대로의 짧은 부정문이 10예 관찰되지만(예16~20), 긴 부정문은 화자6W에 1예(예15)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스타일 면에서의 공통점도 잠복기일본어에서 규범적인 부정형이 적게 출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5) 6W : 私は、このがっ、入るのは入るのに、会社、入ってから、お金もらうために、会社に行ったし、그렇지 않으면、そうじゃなかったら、私の小学校、日本人の学校かようのに、私は会社、入るのためにその、学校を、못、안、行かないです。
(16) 2M : えー、その人は、ううん、말이 안 나오네。
(17) 3W : なぜっていえば、[ええ]、この、ニッポンの[はい]、어、말이 잘 안돼。
(18a) 4M : 世界の平和をー、のために [ええ] 、そういうふうにいかなくては、ない、ない、ん、あ、안、ないでしょうね。
(18b) 4M : 안 나가、더워서、 [ええ] 、暑いからとても、
(18c) 4M : おー、今は 안돼 できないです。
(19) 7P : いろいろした、しても、お金が、わたくしのお金が、ん、積もる 안 하더라고。

(20) 8P : 갑자기니까、말이 안 나오네。{笑い}

둘째, 4.1.(b)에서와 같이 그룹별 과거-부정형의 사용은 문장 내에서의 문말형식의 기능적인 차이에 따른 사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자별 (비)규범형의 사용예를 통해 그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자.

(21a) 1M : その鹿の子供はかわいいだろうと思って[はい]、あの鹿みたいと思っていました。(=1-a)
(21b) 1M : 普通学校の時から[はい]、奈良に行ったら、鹿がかわいいだ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よ。(=1-b)
(22a) NS : 熱海と、ほかはどちらに?
2M : 忘れましたよ。名前は。
(22b) 2M : 転任していったらまた、韓国先生、2人、女2人、男の先生しか、それ以上はこなかったんですよ。

위의 예(21,22)와 같이 화자1M・2M은 문장 내에서의 담화기능에 따라 규범형과 비규범형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21a)(21b)는 동일한 동사「思う」를 각각 초면의 대화상대에게 화자1M의 과거희망을 정중하게 전달하는 문맥에서는 「규범형(マス形)」을 사용하고 과거습관을 나타내는 아스펙트표현과 함께 초면의 대화상대가 모르는 정보를 설명하는 문맥에서는 「비규범형(タンデス形)」을 적절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熱海」이외의 여행지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정중한 스타일로 전달하기 위한 「규범형(マス形)」에 정보제시용법을 가진 종조사ヨ를 접속한 예(22a), 당시 한국인교사가 적었던 상황을 초면의 대화상대에게 설명하는 문맥에서의 「비규범형(タンデス形)」이 도입된 예(22b)도 담화기능에 따른 양자의 사용구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담화 내용상 모든 화자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동사「忘れる」의 사용을 그 형태별로 살펴 보면, 화자4M와 화자6W의 발화에는 규범형(マス形)의 사용은 보이나(예24), 화자3W에게는 보이는 설명, 확인, 주장의 담화 기능을 가진 ン이 빠져 있다(예25,26).

(23) 3W : (日本語は) みんな、忘れたんですよ。
(24) 4M : その以降は日本の書物は読まないです。んー、{笑い}、だから日本語もたくさん忘れました。
(25) NS : そうですか。でも、とてもお上手ですけど、
4M : 忘れた。え、忘れたですよ。
(26) 6W : 覚えてない。覚えたのが、「山のさびしい」、あの歌と、なんの歌か、たくさん分かったのに、全部忘れたですよ。

또한, 남성화자3W・4M에게 확인요구용법의 ジャナイ형식이 보이나, 여기에서도 화자4M의 경우 ン이 빠져 있다(예28). 즉, 일본어접촉정도를 기준으로 (ン)デス形 사용의 적절성은 화자3W와 화자4M의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듯 하다.

(27) 3W : みんな、処女、それ、もう、韓国内の、韓国の処女마(のみ) 、募集したんじゃないですよ。
(28) 4M : だから45年学校に、学校、卒業して、その時はもう、小学校も、우、こう、日本語で教育をした、したじゃないですか。

이어서 화자5P에게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비규범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예29,30), 화자6W・7P는 규범적인 정중체의 사용도 보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형태의 문법적 일탈형도 동시에 두드러지게 눈에 띤다(예31~36). 즉, 위의 화자들에 비해 두가지의 변이형(マス形와 デス形)의 혼재 양상이 보다 현저하다.

(29) 5P : んー、旦那さんも一緒に来たんですか。
NS : いいえ。私は独身です。(=예9)
(30) 5P : 帝国大学が、東京大学로、変わったですか。あ、
→(変わったんですか : 기존의 지식이 수정되어 새롭게 인지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
(31) 6W : この、왜、フヨ公立国民学校は[はい]、朝鮮人만、入ったし、또、日本の学校がおりましたよ。→(ありました)
(32) 6W : 그러니、私の、たち、国民学校、卒業、6年して、日本の学校、入る、入って、2年다시、かよったら、先生に、先生する、あれがあったですよ。
(33) 6W : 3年、4年、5年、6年生から、あの先生から通いました。
(34) 6W : 学校通うのはあ、막、私がちっさい、小さいの時、学校通ったですよ。
(35) 7P : 病気で、病気で死にまし、別れました。
(36) 7P : 8月15日別れたです。

아래의 예문(37)과 같은 「結婚したです」는 화자4M(4예), 화자7P(3예)에만 출현하는 형태이다. 예(38,39) 이외에도 화자7P의 발화에는 「卒業したです=예(2)、まなっだです=예(12)、しましたです=예(13)」 등과 같은 일탈형이 보인다.

(37) 7P : ん、その、日本に行ってきてから、25歳で結婚したです。
(38) 7P : そのあとは一人で暮らしたですよ。
(39) 7P : この年を積もる間、なにをしたですか、そうです。

이상에서 화자1M·2M·3W는 문장 내의 담화기능에 따라 규범형과 비규범형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 화자4M는 설명, 확인, 주장의 담화기능을 가진 ンイ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빠져 있고, 화자5P는 초면의 대화상대에게 질문하는 장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규범형의 문말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화자6W·7P는 고정적이고 규범적인 형태의 정중체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나, 화자7P의 담화에 문법적인 일탈형이 훨씬 두드러지게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자8P의 경우는 오히려 예문(14)를 제외하면 모두 아래와 같은 규범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0) 8P：今日は、あー、お、あ、歩いてきました。
(41) 8P：あー、저、し、げ、月、だから、토요일、일요일、一週間に、조、ににち、[はい]、え、にちは、ここにあー、休みします。
(42) 8P：生活、どんな生活、［60、70年前］、んー、んー、だから、、んー、んー、んー、小さい、小さい때、だからね［ん］、みんな忘れましたよ。
(43) 8P：日本に行ってね、暮らしました、暮らしましたらね、[はい]、あ、暮らしがやり、やり、まする、やりますよ。→(暮らせます)

이와 같이 문장 내에서의 기능에 따른 정확한 (비)규범형 문말형식의 사용은 일본어접촉도 면에서 볼 때 화자간에 연속적인 형태로 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잠복기일본어의 동사문을 중심으로 그 문말형식의 보존 양상을 기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일본어접촉도가 낮아질수록 비규범적인 부정형을 우위적으로 사용하는 활용형의 단순화, 합리화(분석화)가 제2언어잠복기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연습득적 요소가 약하고 교실습득적 요소가 강한) 일본어접촉도가 낮은 층일수록 고정적이고 관용적인 규범형이 많이 보존되고 있다.
(2) (1)과 같은 동사문말형식의 보존 유형은 형용사술어문, 명사술어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비규범적인 デス形이 문말형식으로 多用되는 점은 (학습자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모든 문말형식에서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문말형식의 단순화에는 스타일 면에서 한국어의 영향을 생각할 수도 있으며, 문장내 기능에 따른 (비)규범형의 사용구분에 있어서 그 차이가 화자별 일본어접촉도와 상관적으로 나타난다.
(4) 일제강점기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습득단계, 접촉중단 시점에서의 일본어 문말형식의 정확한 모습에 대해서 추측할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잠정적인 결론이 되겠지만, 현재의 한국인일본어학습자에 대한 선행연구(森山1998 등)를 참고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동사술어문의 부정-정중체의 습득, 보존, 마멸(또는 회귀)의 프로세스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 비과거：㈎マセン→ ㈏ナイ(ン)デス→ ㈐ナイ(ン)デス・マセン→ ㈑ナイデス
(b) 과거：㈎マセンデシタ→ ㈏ナカッタ(ン)デス→ ㈐ナカッタ(ン)デス・マセンデシタ→ ㈑ナカッタデス

결론적으로 잠복기일본어의 문말형식은 그 형식과 기능면에서 일본어학습자로서의 단순화와 합리화(분석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회귀형) 중간언어의 모습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마지막으로 아스펙트표현, 가능동사 등의 전접하는 동사종류와의 상관관계, 의미상 종조사의 승접 여부, 사용장면 및 문맥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잠복기일0본어의 보존 특징을 본고에서는 깊게 다루지 못하였지만, 대량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앞으로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의 말】

본고의 작성을 위해 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을 나누어 주신 어르신들에게 엎드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조사가 끝난 뒤 얼마 후 고인이 되신 어르신의 명복을 빕니다.

【参考文献】

金沢裕之(2008)『留学生の日本語は、未来の日本語―日本語の変化のダイナミズム―』ひつじ書房
木口政樹(2009)「韓国における残存日本語の変容をめぐって」『日本研究』24輯 中央大學校 日本硏究所
――――(2004)『韓国における残存日本語の摩滅に関する研究－「韓国人高齢者コーパス」の分析を通して－』中央大学校 博士論文
国立国語研究所編(1997) 国定読本用語総覧『小学国語読本』第4期CD-ROM版 巻一～巻十二
真田信治(2009)「東アジア残留日本語のダイナミックス」『月刊言語』Vol.38.No.1 pp.82-89.
田野村忠温(1994)「丁寧体の述語否定形の選択に関する計量的調査―「～ません」と「～ないです」－」『大阪外国語大学論集』第11号 pp.51-66.
野田春美(2004)「否定ていねい形「ません」と「ないです」の使用に関わる要因―用例調査と若年層アンケート調査に基づいて―」『計量国語学』24券5号 pp.228-244.
野田尚史・迫田久美子・渋谷勝己・小林典子(2001)『日本語学習者の文法習得』大修館書店
黄永熙(2008)「韓国人高年層日本語の実態からみる第二言語の保持」大阪大学文学研究科 博士論文
森山新(2000)『認知と第二言語習得』図書出版啓明
――――(1998)「日本語動詞活用の習得と運用―学習歴1年未満の初級学習者を中心として―」高大日語教育硏究會(http://jsl.li.ocha.ac.jp/morishin1003/rep2.html)

2) 이와 관련해 真田(2009)는 현대일본어에서 동사부정문(정중체)의 사용실태에 대해 잡지『キネマ旬報』에 출현하는 회화문을 대상으로 문말형식의 사용빈도를 집계하여 일본내에 있어서 「～マセン」에서 「～ナイデス」로의 시프트 양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대학원생의 졸업논문과 木口(2009)를 근거로 식민지에서의 일본어가 진취적인 것으로 변용하게 된 것은 그곳이 탈표준의 지역, 언어규범으로부터의 해방구이었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マス形에서 デス形으로의 이행은 일본 내에서의 언어변화를 선행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어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하고 있다.

< 要 旨 >

植民地時代の日本語学習者における文末形式の保存

本稿は、韓国老年層が植民地下の近代的な日本語学習環境で習得し、60年以上も保持している日本語(＝潜伏期日本語)の文末形式を言語規範という側面から、その保持の実態とかかわる言語内的・外的な諸要因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

潜伏期日本語の文末形式(丁寧体の動詞文)では、自然習得的要素と学習習得的要素とも強く日本語の接触度の高い層に、安定的な規範型(マス形)や非規範型(デス形)が多く保持されており、そこには現在の日本語学習者の習得過程にも現れる、中間言語の普遍的な「単純化」「合理化(分析化)」のストラテジーが働いている様子が見られる。

また、文末形式の使用には韓国語のスタイル・レベルの影響によるもの、女性話者の規範型に対する優位的使用、日本語接触度が低くなるほど不安定的で慣用的な規範型を多用するという、言語外的要因との相関性も見られる。なお、日本語接触度の高い話者における文末形式の使用には、談話機能によって両者を使い分けている、言語内的要因も見られる。

潜伏期日本語の文末形式は主に、一定レベルの日本語能力を経験した話者に多様な形で現れているなか、話者別の非規範型の出現様相からみて、(非常に暫定的ではあるが) 先行研究での習得プロセスとは鏡像をなす形で「マセン・マセンデシタ」より「ナイデス・ナカッタデス」が長期間保持されているプロセスが考えられる。

▣ 황영희(**黃永熙**)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yokohama@korea.ac.kr

■ 投 稿 日 : 2010년 5월 31일

■ 審査開始 : 2010년 7월 5일

■ 審査完了 : 2010년 8월 16일

■ 掲載確定 : 2010년 8월 30일